http://dx.doi.org/10.14400/JDC.2014.12.9.1

대학생의 IT 기술창업의지 영향요인 분석

전향순*, 심상오**
한밭대학교 창업학과*,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IT Technology Startups will

Hyang-Soon Joun*, Sang-Oh Shim**
Dept.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Hanbat National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창업 휴학제와 창업 강좌 등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가 확산대면서 대학생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실업율과 평생취업이 힘든 사회적 환경 속에서 IT전공 대학생들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영향요인들을 알아보고, 창업영향요인과 기술창업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IT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기술능력과 창업가특성 및 창업동기, 외부창업환경 등의 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IT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IT전공 대학생들은 취업의 대안으로 기술창업에 관심이 높았고, 기술능력과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가 독립심과 취업의 대안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생 기술 창업에서 창업교육은 외부창업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기술창업, 정책, 대학생, 창업동기, IT 기술

Abstract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courses, including my recent absence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friendly system is activated, the spread of technology startups to be scanning my college. However, the college is successful technology startups to take place in order to be solved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this paper, we have a hard job and continuing high unemployment and social environment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IT technology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ac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In particular, IT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echnology startups will affect students' technical skills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outside the extraction and evaluation items such as IT skills to analyze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In analysis result, IT major career college students interested in entrepreneurship as an alternative to the higher technology, technical skills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start-motivated alternative to independence and had an impact on employment. In addition, the university was founded in tech startup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a lot of outside influence.

Key Words : Technology start-up, policies, college, Entrepreneur's motive, IT Technology

Received 30 May 2014, Revised 9 July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ang-Oh Shim(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soshim@hanbat.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창업 휴학제와 창업 강좌 등 창업 친화적인 학사 제도를 통해 대학생의 기술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학생 기술창업을 정부 주도하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IT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대학생의 IT기술창업은 IT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대학생이 보유한 기술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개발 등과 같은 대학생의 IT기술창업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창업은 창업가의 기술, 경험, 전문적인 노하우 등의 지식을 모태로 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창업행위를 의미한다. 기술창업과정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 특성상 제품개발에서 마케팅 활동까지 복합적 기능 수행 능력과 사람이 성공의 핵심요인이 되고, 조직 내부 간 긴밀한 협동과 외부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2, 3].

현재까지 IT전공 대학생들은 스마트기기와 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 등, IT 기기의 생활화로 이전의 IT분야 지식과 비교 했을 때 매우 고도화, 전문화된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방소재의 대학일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4,5,6].

IT 핵심역량을 갖춘 대학생들은 요구조건 및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개발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필요하다[7,8].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IT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를 분석하여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창업영향요인으로는 창업가의 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기술력, 창의력과 더불어 창업가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양한 외부창업환경 중 창업지원제도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기술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술창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술창업과 창업영향요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대학생의 IT 기술창업의지에 대한 창업영향요인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창업영향요인이 대학생의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기술창업

창업(New business creation)이란 일정한 사업목표 아래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창업의 유형은 정형화된 유형을 찾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창업가의 나이에 따른 분류, 둘째는 업종에 따른 분류, 셋째는 창업가 창업배경 및 동기에 따른 분류, 넷째는 창업시점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1,3]. 창업은 <Table 1>처럼 새로운 기술 없이 창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등의 일반창업과, 창업가가 기술과 아이디어 및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술창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창업은 기술, 경험, 전문적인 노하우 등의 지식을 모태로 하여 새로운 상품, 서비스 자원, 조직형태 등으로

〈Table 1〉 Technology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in gener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Business Type	Form of doing business	Specificity
Technology start-up	Manufacturing Professional Services Knowledge of cultural projects	Products with new technology or new ideas (services) in the form of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 Creation of high-risk and high return on success - Establishment of small to mid-sized businesses grow through growth can
General start-up	General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construction)	Catering, Barbershop & Beauty Salon, and other general merchandise distribution, such as a simple form of the general business	- Low entry barriers, frequent start-up and decay - Establishment of small-cap generally small-scale, low-value-added

조직을 탄생시키는 행위, 새로운 부를 창출시키는 능력, 기존의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 위협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 또한, 기술창업기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Start-up)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적 기업이지만,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Venture)·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이노비즈(Innobiz)·첨단기술집약적 기업(High Technology-based Firm: HTBF)·신기술집약적 기업(New Technology-Based Firm: NTBF)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4,7].

2.2 기술창업 영향요인

기술창업과정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 특성상 제품개발에서 마케팅 활동까지 복합적 기능 수행 능력과 사람이 성공의 핵심요인이 되고, 조직 내부 간 긴밀한 협동과 외부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6]. 주요 요인으로는 지식과 기술, 교육수준, 사회적 창업지원 네트워크, 창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 시장의 경제적 상황, 재무자금의 활용성 및 창업인프라 등이 있다[5,8].

〈Table 2〉 Components of Technical skills

Technical skills	Component
Objective technical skills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has increased official,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 rights, official technology certification, capacity and investment capability, innovation capability
Subjective technical skills	Absorptive capacity, technology selection, capacity, and technical problem-solving skills, and to expand the capacity, technology-generating capacity, technology acquisition and partnership skills, technology acquisition and technology literacy

기술창업의 기술자원들에 대한 구성요소들은 <Table 2>와 같다. 산업의 발전은 기술능력의 획득과정이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능력의 축적이 필요하다. 기술능력은 기업이 가지는 핵심능력의 기초이며 경쟁우위의 원천이다.

3. IT 기술창업 의지에 대한 정책 분석

이 절에서는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기술능력과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 외부창업 환경 등의 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IT 기술창업 의지에 미치는 정책을 분석한다.

3.1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창업영향요인들을 구성하고,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기술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영향요인들의 조절작용을 파악한다. 창업영향요인의 구성은 대학생의 기술능력 및 창업가 특성과 창업동기 요인에서는 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기술력, 창의력, 그리고 창업가의 외부창업환경요인은 창업지원제도, 창업교육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한다.

3.2 연구모형

연구 모형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대학생의 기술창업 의사를 결정하는 창업영향요인에서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창업영향요인과 관련한 기술능력 및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동기의 선행연구에서 기술력, 창의력, 창업지원제도, 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창업교육 등의 요인들은 대학생의 기술창업에 대한 창업 의지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3.3 측정항목

대학생의 IT 기술창업 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각 연구 변수들의 개념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기술력, 창의력, 창업지원제도, 창업교육, 기술창업 의지 등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독립심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변수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 속에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야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으로 정의된다. 자아실현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변수로, 성취동기 및 성취 욕구에 해당한다. 취업의 대안은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의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동기의 영향요인이다. 기술력은 대학생의 기술창

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IT 핵심역량이다.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이다. 창업교육은 개인적 영향요인과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분류 후, 대학의 창업 문화, 대학의 창업 강좌, 외부 강좌 등으로 대학생의 기술창업의지를 평가한다.

4. 검증분석

대학생의 IT 기술창업 의지에 대한 측정결과의 검증분석 방법은 타당성 검증에서 많이 사용하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과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 분석, 변수들 간 관계를 의미하는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한 검증분석을 수행한다. 검증 분석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은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를 산출한다.

4.1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변수의 형태로 주어진 정보들을 쉽고 간단하게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하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였고,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sults of Start-up

Concept	Factors	Factor loadings	Commonality	Reliability Factor
Factors Affecting Start-up	Independence	.591	.634	.653
	Self-actualization	.631	.537	.621
	Alternative employment	.695	.536	.618
	Technical skills	.850	.748	.862
	Creativity	.627	.463	.829
	Start-up supporting policies	.726	.640	.904
	Start-up education	.695	.703	.892

〈Table 4〉 Factor analysis of Technology start-ups will result

Concept	Factors	Factor loadings	Commonality	Reliability Factor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713	.668	.910

<Table 3>과 <Table 4>은 대학생 IT 기술창업 의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결과이다. <Table 3>의 신뢰도 분석결과처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독립심 α=.653, 자아실현 α=.621, 취업의 대안 α=.618, 기술력 α=.862, 창의력 α=.829, 창업지원제도 α=.904, 창업교육 α=.892, 기술창업의지는 α=.910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도 기준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술창업의지는 총 8개의 설문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응답의 대푯값의 기술통계량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Independence	3.187	.852	262
Self-actualization	3.633	.781	262
Alternative employment	2.835	.648	261
Technical skills	2.884	.751	262
Creativity	3.083	.599	262
Start-up supporting policies	3.078	.804	262
Start-up education	3.165	.786	262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2.894	.870	262

<Table 5>을 통해 상관관계의 정도는 1에서 ±1 오차로 나타났으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창업영향요인의 요소와 기술창업의지의 요소와 기술창업의지의 하위요인인 상관행렬은 <Table 6>와 같은 상관계수 값이 나타났다.

<Table 6>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Table 6〉 Relationship of variability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Independence	1							
Self-actualization	.432**	1						
Alternative employment	.242**	.121	1					
Technical skills	.237**	.203**	.081	1				
Creativity	.293**	.371**	.037	.430**	1			
Start-up supporting policies	.432**	.357**	.277**	.192**	.401	1		
Start-up education	.394**	.230**	.348**	.102	.263**	.585**	1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474**	.244**	.426**	.098	.226**	.431**	.665**	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1 level (both sides) to the note.

다. 이는 설정된 가설에 의해 개념들 간 관계가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가정과 일치하므로 기준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가설의 검증

4.3.1 창업영향요인과 기술창업의지와의 관계

대학생의 IT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기술능력과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기술력, 창의력)와 외부창업환경(창업지원제도, 창업교육)을 독립변수로, 기술창업의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다.

- 가설 1: 독립심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자아실현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취업의 대안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기술력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창의력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창업지원제도는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창업교육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Table 7>에서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과, 학년, 창업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에 의해서 하나의 선형방정식을 도출하였다.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검토하였으나 공차한계는 모두 기준치인 0.1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아 문제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Start-up -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Tolerance limits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Constant	.276	-	-1.222	.223	-
	Independence	.054	.229	4.369	.000	.678
	Self-actualization	.057	.007	.144	.886	.721
	Alternative employment	.063	.198	4.194	.000	.842
	Technical skills	.058	-.033	-.662	.509	.748
	Creativity	.081	.017	.311	.756	.606
	Start-up supporting policies	.063	-.017	-.294	.769	.547
	Start-up education	.062	.512	9.088	.000	.588
	R^2=.527, Adj R^2=.514 F=40.283, Durbin Watson=1.886					

〈Table 8〉 Whether the hypothesis adopted

Hypothesis	Path		Whether adopted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1	Independence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Adoption
2	Self-realization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Dismissed
3	Alternative employment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Adoption
4	Technology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Dismissed
5	Creativity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Dismissed
6	Start-up supporting policies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Dismissed
7	Start-up education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Adoption

4.3.2 검증결과

<Table 8>처럼 기술창업의지의 창업영향요인인 독립심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검정통계량인 t값이 -4.369($p<0.001$)로 나타나 채택 ±1.94를 상회하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자아실현이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t값이 .144($p<0.001$)로 나타나 채택 ±1.94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기각되었다. 취업의 대안이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는 t값이 4.194($p<0.001$)로 나타나 채택 ±1.94를 상회하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기술력이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t값이 -.662($p<0.001$)로 나타나 채택 ±1.94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기각되었다. 창의력이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t값이 .311($p<0.001$)로 나타나 채택 ±1.94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기각되었다. 창업지원제도가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t값이 -.294($p<0.001$)로 나타나 채택 ±1.94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기각되었다. 창업교육이 기술창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은 t값이 9.088($p<0.001$)로 나타나 채택 ±1.94를 상회하므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IT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 외부창업환경이 기술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야망인 독립심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생각하는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창업의지가 높은 대학생들은 창업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잠재적 창업가의 경영에 대한 지식습득과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 등의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기술창업의지에 대한 요인으로 자아실현, 기술력, 창의력은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험 및 창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 부족이 그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성공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사업아이템 선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정보, 대학기업가정신 함양 등의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및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IT 기술창업의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REFERENCES

[1] Lee, C., Lee, K. and Penning, J. M.(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ology-Based Ventu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Special issue), 615-640.

[2] McDougall, P. P., R. B Robinson]r and A. S. Denisi (1992), "Modeling New Venture Performance: an Analysis of New Venture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Venture Origin", Journai of Business Venturing, Vol. 7. pp. 267-289.

[3] Naffziger, D. W., Hornsby, J. S. & Kuratko, D. F.,(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pp.29-42.

[4] Sternberg, R. and A.R.M. Wennekers (2005).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New Business Creation Using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193-203.
[5] Vangelis, S., Stefania, Z. & Andreas, A. L.(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e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lsevier, 22(4), pp.556-591.
[6] Zhao, M.(2006), Conducting R&D in Countries with Wea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Management Science, 52(8), 1185-1199.
[7] Krueger, N. F., Relilly, M. D.,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 7-28.
[8] Krueger, N, F, et a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5). pp 411-432.

전 향 순(Joun, Hyang Soon)

・1999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석사)
・2002년 2월 : 공주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박사수료)
・2014년 2월 : 한밭대학교 창업학과(창업학석사)
・관심분야 : 기술창업, 대학기업가정신, 퍼지, 베이지안네트웍
・E-Mail : hsjoun@kongju.ac.kr

심 상 오(Shim, Sang Oh)

・2006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공학박사)
・2009년 3월 ~ 현재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SCM, 생산운영관리, 창업관리
・E-Mail : soshim@hanbat.ac.kr